

2016년 11월 9일, 구좌읍 세화리 조홍순씨 댁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김순자(여, 1947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제보자2: 조홍순(여, 1924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**[제보자1]** 콩데기 뜻데기 무신 헤그네. 이제 콩주 어머니 어멍은 죽어불곡 제주도 말로 죽어불고, 또 이제 작은 이제 어멍 헤오니깐. 콩주는 자갈밭만 메렌 허곡, 뜻주는 밧 메는 것도 막 얘기 흐나 데령 왓어. 그 작은어머니가 데령 오니깐. 그 밧도 막 그냥 이 흑땅에 존 존 존 디만 가서 모살밭디 메렌 헷인디. 이제 저 그거 그런 말 헷주게. 또 크니깐 저, 잔치집일, 자기네는 콩주허고 뜻 어머닌 데령 가고, 또 콩주만 내비동 가멍, 물을 이제 항 그득허고 맹지 두 필인가 짜곡 헤 동 가렌 헌 거라. 난 몰르크라. 잘. 가렌 헷인디 그 맹지는 이제 저 뒷고 새 새가 왕 짜 줘덴 헷인가? 허곡, 또 나룩 넌 건 이제 다 이제 벗겨동 가렌 허난, 새덜 이 이젠 나룩은 다 벗겨주곡 날아왕, 이제 막

“이 새 저 새”

다 울려가난, 이제 막 놀아놔 부난에, 새가 날아강 보니깐 다 까젖어. 쌀이 다 까지고, 물도 이제

“구렁질라. 구렁질라.”

막 헷덴 헌게, 허단 보난 두꺼비가.

**[제보자2]** 구렁질라는 그 터진 허벅에 물.

**[제보자1]** 항아리 터진 거에, 항아리.

**[제보자2]** 경 허난게 그 구렁질라 허는 거게.

**[제보자1]** “구렁질라. 구렁질라.” 허단 보난 또 두꺼비가 그것이 그 밑에 이제 그 막 저 터진 딜 막으니깐 물도 까득 질언 가다가 이젠 아이고 이젠 옷은 입어 갈 거 엇언 어떻 헹 허당 보난, 옷도 이젠 그 비단옷 허곡, 신도 꽂신허곡 그거 어디 잊어. 간 보난에 그거 헹 신고 가당 보난에 그거 신 한 짹을 냅가에 빠뜨린 거라. 빠뜨려 동 이젠 간 보난 잔치도 다 끝난 와 불곡 헷인디.

이제 사또가 잔치 끝난 가가 보니깐 신은 한 짹을 주운 거라이. 주워그네 이제 그 신발을 촛지 못헨 신발을 찾으레 한 삼일 잇다가 온 거 아니. 말 타그네 오니깐 이젠, 팥지 어멍은 이젠 자기 뜰 데령 강 자기네 뜰 거렌 허멍 뜰 거렌 허멍 콩지는 오지 못허게 허곡 신이 발에 맞았지. 거난 이제 그 피, 발 막 피 막 발가락 이제 다 막 끄치멍 헤도 안 맞앙 허난 이제 내중엔 이젠 콩주가 나왓인디 신어보렌 헹 신으니깐 맞은 거라. 맞이난 또 그 콩주가 이젠 데강만 줄거리만 골았주. 그거.

**[제보자2]** 잘 골으라. 그거 콩 몰라고네.

**[제보자1]** 아니 아니 그 저 누게가 그 사또가 이제 한티 결혼해가지고 잘살았던 허드라고.

- 핵심어 : 콩데기, 뜻데기, 새, 항아리, 두꺼비, 콩주, 신 한 짹, 꽂신